



창원도서관과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0년

채기명 / 2023년 책 읽는 가족

“안녕하세요? 창원도서관입니다. 이번에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라는 반가운 전화.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에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쯤,

첫째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창원도서관에 갔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유아 자료실에서 그림책을 읽어 주던 그 시간이 엇그제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흘렀네요. 둘째가 태어나면서 첫째는 아빠와 도서관 나들이를 다녔고, 둘째가 돌이 될 즈음에는 온 가족이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쿵쿵 독서 계단을 채워 가는 뿌듯함, 독서 퀴즈를 풀고 당첨되기를 빌며 상자에 넣던 그 순간의 작은 떨림, 타요 버스와 함께하는 사진전에 당첨된 후, 선물로 받은 쿠폰으로 바꾼 아이스크림을 먹던 달콤한 순간, 날씨 좋은 날 도서관 야외에서 했던 플리마켓,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책의 날 행사, 도서관에서 본 인형극, 짧지만 즐거운 샌드아트 체험, 어른인 저에게도 너무 유익했던 하브루타 수업 등등

돌이켜 보니 창원도서관과 함께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눈부신 봄의 도서관, 장미가 핀 길을 따라 올라가던 초여름의 창원도서관, 시의 한 구절을 보며 걷는 가을의 도서관, 밝은 추위도 안은 너무나도 따뜻한 겨울의 도서관. 사계절 내내 우리 가족 곁에 있어 준 창원도서관이라 참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책 읽는 기쁨을 아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자주 도서관에 갔습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이들 손을 잡고 창원도서관에 가는 상상. 저 또한 할머니가 되어 손자, 손녀에게 창원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상상.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지금껏 우리 가족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준 창원도서관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많은 가족과 우리 가족 곁에 20년, 30년, 10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